

## 800억원 춘천 신청사 수주 관심

### 중심제 시행 한달·도내 첫 적용 대상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인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중심제)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29일 강원도와 도 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2월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입찰 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중심제 심사세부기준을 제정, 2월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했다.

세부 기준의 주 골자는 공사 준공 후 시공결과를 평가해 입찰에 반영하는 등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공동계약 때 배점을 2점으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도 0.4점으로 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도내 첫 중심제 적용 대상은 800억원 규모의 춘천시청사 건설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심제는 시공경험 배점이

높아 중견·대형 건설업체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춘천시청사 역시 지역 제한이 아닌 전국 입찰로 풀릴 것으로 보여 지역 업체 수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처럼 중심제는 강원도를 비롯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공사 수주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를 비롯해 영세한 지역 건설사들은 시공실적 인정기준 완화, 공동수급체 구성 배점과 사회적 책임 항목 배점도 상향조정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중심제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공능력과 경험이 많은 건설사가 우대될 경우 지역 영세 업체 공사 수주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심제는 입찰금액 외에도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은복 rio@kado.net

# 춘천 애막골 인근 택지 조성

## 박물관-거두리 사이 축구장 3배 규모

춘천 석사동 애막골 인근에 축구장 3배 규모의 신축택지 조성이 민간 사업으로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춘천시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건설은 국립춘천박물관 앞 원룸촌과 동면 거두리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에 위치한 2만5700㎡ 면적의 부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석사지구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지난해 12월 신청했다.

이 면적은 국제규격 축구장(8250㎡)의 3.1배에 달하는 규모다. A건설은 토지구입비와 토목공사비 등 70여억을 들여 단독주택용지 55필지로 분할된 택지를

오는 12월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A건설은 9900㎡ 규모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 건축허가를 받고 다음달인 10월 착공신고를 마쳤다.

이후 면적을 2만5700㎡ 규모로 확대 추진하면서 1만㎡ 이상의 택지 조성은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아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춘천시는 A건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친 5·6월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해당 부지에서 거두리 방면으로 길이 100m 가량의 진



석사지구 대지조성사업 구역(흰색 실선)

입로 개설을 A건설에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사지구 대지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우석초교 옆 옛 경자대대 부지(3만㎡)를 신축 택지로 개발하는 석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 애막골 일대 인구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택지 개발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택지 개발이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시도관리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춘천/김정호 kimpro@kado.net